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8. 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美·英, “레바논 즉시 떠나라” 자국민에 권고
 - 8.4 언론은 美·英이 레바논에 체류중인 자국민들에게 “즉시 레바논을 떠나라”고 권고했다며,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에서 하마스와의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살해한 뒤 전운이 짙어진 데 따른 조치라고 보도
 - ※ 스웨덴은 베이루트 주재 대사관을 일시적 폐쇄했으며 프랑스·폴란드도 불안정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3개국(이스라엘, 이란, 레바논)을 떠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발표

미주

- 9·11 테러 설계자, 死刑 대신 美와 유죄 합의
 - 8.1 언론은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국방부에 여객기를 충돌시킨 9·11 테러 설계자 「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」 등 3명이 사형 선고를免하는 대신 기소장에 적시된 2,976명을 살해한 혐의 등 모든 범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
 - ※ 美 검찰은 同人이 지하디스트로 1996년 알카에다 수장 「오사마 빈 라덴」에게 아이디어를 제시, 이후 여객기 납치범들을 훈련하고 지시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
- 미국, 아프리카 對테러 거점이던 니제르에서 철수
 - 8.6 언론은 미군이 아프리카 內 대테러 핵심 거점으로 삼았던 니제르 마지막 기지(감시용 드론 운용)에서 병력과 자산 철수를 완료하였으며, 독일도 오는 31일까지 공군기지에서의 작전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보도
 - ※ 지난해 니제르 군부가 정권 장악 후 러시아와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맺으면서, 이슬람 무장단체 소탕을 위한 미국과 니제르의 군사 협력이 중단

중 동

- 이란, 하마스 최고지도자 사망에 이스라엘 배후로 지목
 - 8.1 언론은 이란 최고지도자 「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」가 수도 테헤란에서 치러진 「이스마일 하니예」의 장례식에서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지시했다고 보도
- G7, 중동에 긴장 완화 촉구 성명 발표
 - 8.5 주요 7개국(G7) 외무장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“중동 지역의 고조된 긴장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”며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
 - ※ 언론은 이란 보복공격에 헤즈볼라, 후티반군 등 域內 대리 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, 이스라엘도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
- 이란, 이스라엘 보복 공격 논의를 위해 긴급회의 예정
 - 8.6 언론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* 논의를 위해 전세계 이슬람권 국가들의 긴급회의를 요청하여 이슬람협력기구**(OIC)가 오는 7일 사우디에서 외무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
 - * 미국 등은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으며, 헤즈볼라 등이 가세할 수 있다고 관측
 - ** 이란, 사우디아라비아, 이집트, 파키스탄, 튀르키예 등 이슬람권 57개국 소속

아 · 태평양

- 대통령실, 중동정세* 긴급점검 회의 개최
 - 8.1 언론은 대통령실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·하마스 간 충돌로 ‘중동 상황 관련 안보·경제 합동 점검회의’를 개최, 현지 교민의 안전 강구와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 등을 검토했다고 보도
 - *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 「이스마일 하니예」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정세가 급변

- 國內 공항, 4년여간 실탄 등 ‘안보 위해물품’ 2천건 이상 적발
 - 8.4 언론은 지난 4년간 國內 공항 보안검색에서 ‘안보 위해물품’의 적발 사례가 2,500건에 달한다며 안보위해 물품은 총기, 실탄, 도검(칼날 15cm 이상), 폭발물 등 테러에 악용될 수 있어 기내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라고 보도
 - ※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연도별로 '20년 341건, '21년 433건, '22년 606건, '23년 722건, '24년 상반기 333건이며 절반 이상이 인천공항에서 적발되었다고 부언

- 호주, 自國 내 테러 가능성에 테러 위험 등급 상향
 - 8.5 호주 정부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분쟁 등 쏠 세계 이념 및 종교 갈등으로 自國 내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테러 위험등급을 4등급(possible)에서 3등급(probable)*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
 - * 언론은 호주 안보정보원(ASIO)의 인터뷰를 근거로 3단계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실제 공격이 있거나 공격 계획 가능성이 50% 이상이라는 뜻이라고 보도

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 공안 대상 차량돌진 테러

- '08.8.4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막 나흘 전 신장 위구르 자치區에서 공안 소속 국경경비부대를 겨냥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, 16명이 사망하고 16명 부상



- 테러범 2명은 트럭 두 대에 분승해 국경경비부대로 난입, 훈련 중인 부대원 10여명을 덮친 후 하차해 흉기를 휘두르고 수류탄을 투척

- 한편, 중국 정부는 “올림픽에 대비 '08.1~6월 신장 위구르 자치區에서 테러 기도 5개 조직 82명을 검거하고 훈련 거점 41곳을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했음에도 同 사건이 발생했다”며 당혹감 표출

- * 한편,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區 무장 분리·독립 운동조직인 ‘東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(ETIM)’의 올림픽 겨냥 테러 첩보를 사전에 입수했음에도 차단 실패

- 同 사건은 올림픽 개막을 앞둔 중국의 대테러 능력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올림픽 기간 중 추가 테러에 대한 불안감 지속

⇒ 국제테러단체들의 파리올림픽 테러 선전·선동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폐회식 등 남은 일정 간 테러 예방 및 선수·관중 등 안전 보호 만전

< 東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(ETIM) >

- (목표) 중국 신장지역內 이슬람 국가 건설
* 테러단체 지정 : UN('02.9), 미국('02.9), 영국('16.7), 중국('03.12)
- (주요인물) 지도자: 「압둘 하크 투르키스타니」 ('03.11 선임)
- (결성·규모) '97.8월·아프간 약 350명, 시리아 4,000~5,000여명 활동 추정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·탈레반,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, 東투르키스탄 해방기구
- (주요테러) '14.3 윈난성 쿤밍市 기차역에서 위구르族 무장세력의 흉기 난동(170명 사상)
'14.5 신장 우루무치市 재래시장에서 차량 폭탄테러(122명 사상)
'16.8 키르키스스탄 비쉬케크 주재 중국 대사관에 차량 자폭테러(3명 부상)